

2023. 12. 8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8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

원 장	손 성 일	02-450-9301
동물팀장	조 경 욱	02-450-9366
관련홈페이지	www.sisul.or.kr →서울어린이대공원	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3매

"소외받는 동물 없도록 약자동행 실천"

서울시설공단, '서울어린이대공원 2023 최우수 장관상' 수상

- 국내 14개 동물원 대상 생물다양성 보전 전문기관 활동 평가에서 최고상 선정
- 약자동행 주제로 소외 동물 없도록 동물 복지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가정 초청 진행
- 한국영 이사장 "약자동행 실천노력 인정받아·동물복지 확대위해 동물원 재조성 사업 추진"

- 서울시설공단 (이사장 한국영, www.sisul.or.kr)은 서울어린이대공원이 국내 14개 동물원·수족관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동물원 수족관협회 (KAZA)가 주관한 '2023 국내 동물원 어워드 평가'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.
- '2023 국내 동물원 어워드 평가'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비롯한 국내 14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'생물 다양성 보전 전문기관으로서의 활동 내용'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.

-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이번 평가에서 ‘약자와의 동행’을 주제로, 동물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관심도가 높은 인기동물 위주가 아니라 소외되는 동물이 없도록 운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, 어린이 및 가족대상으로 운영하던 동물원 초청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확대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.

- 또한, 올해 얼룩말 ‘세로’ 동물원 탈출소동을 계기로 동물 복지확대에 힘쓴 점과,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올해 4월 전주동물원으로 코끼리를 안전하게 이송한 부분도 동물 복지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- 한편, 창립 40주년을 맞은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곳곳에서 약자동행 사업 70여개를 꾸준히 시행·보완하는 등 약자동행 마인드를 체계화·체질화하여 서울시의 ‘약자와의 동행 정책’을 구현하고 있다. 최근 한국영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노사합동으로 ‘사랑의 김장나눔’ 봉사활동을 진행해 성동구 취약계층을 지원한 바 있으며, 서울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동파방지를 위해 수도계량기에 보온매트와 보온솜, 안내스티커 등을 설치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한 바 있다.

-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이번 수상은 특히 약자동행의 가치를 동물에게까지 확장시킨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”며 “지속적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노후되고 열악한 동물원 재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〈관련사진〉

